

권혁승 교수의 <남북 왕조의 멸망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2강

엘리아의 마지막 사역(1) : 아하시야의 죽음 예고

오늘의 포인트

1. 아하시야는 왜 에글론의 바알세뿔을 찾았는가?
2. 세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화를 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엘리야는 아하시야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에 따라 행동하였는가?

강의 본 내용

열왕기하의 첫 두 장(1~2장)은

엘리아가 마지막으로 행한 두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첫 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일이다

전자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선지자 사역을 통하여 역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두 가지는 열왕기하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다

**1. 낙상 사고를 당한 아하시야가
사신을 에글론의 바알세뿔에게 보냄**

(열왕기하 1장 1~2절)

1. 낙상 사고를 당한 아하시야가 사신을 에글론의 바알세뿔에게 보냄

- 1) 열왕기하의 첫 시작 부분은
아하시야에게 닥친 두 가지 위기를 소개한다
첫째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정치적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다락 난간에서 낙상한 개인적인 사건이다

1. 낙상 사고를 당한 아하시야가 사신을 에글론의 바알세뵘에게 보냄

2)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은 바알 신앙을 도입하여 이스라엘을 영적 위기에 빠뜨렸지만 외형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안겨주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이웃 나라 모압은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해왔던 대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다 성경은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에 바친 조공이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털과 숫양 십만 마리의 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왕하 3:4). 그러나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고 그런 사실은 1869년 디본에서 발견된 ‘메사의 석비’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메사의 석비]

모압 왕 메사의

전승 업적을 기록한 석비

(높이 1.2m, 폭 60cm, 두께 35cm)

“나, 디본인 모압의 왕(the King of Moab) 메사(Mesha)는
이스라엘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석비를 그모스(모압의 신)에게 바친다
나의 아버지는 30년 동안 모압을 통치했고
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왕들로부터 나를 구원해주었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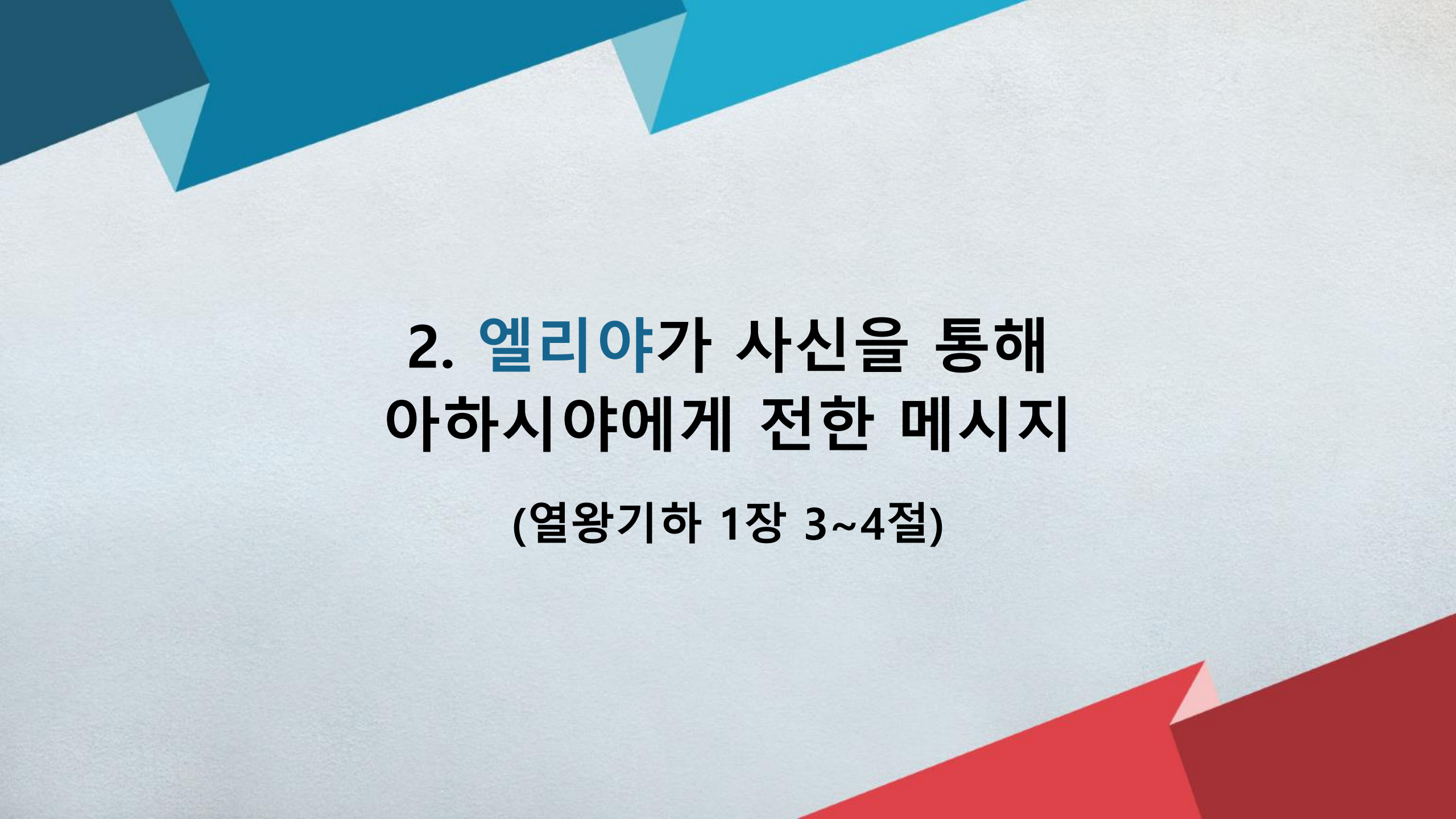
- '메사의 석비' 내용 중 -

1. 낙상 사고를 당한 아하시야가
사신을 에글론의 바알세뵘에게 보냄

- 3)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것이다
이에 아하시야는 사신을 에글론의 신 바알세뵘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낫겠는가를 물어보려 하였다

1. 낙상 사고를 당한 아하시야가 사신을 에글론의 바알세뿔에게 보냄

- 4) 왜 아하시야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뿔(전염병을 옮기는 파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신)을 찾은 것일까?
- a. 기복적인 세속주의 바알 신앙에 깊이 물들어 있었음
 - b. 여호와와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자신이 미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
 - c. 바알세뿔은 자신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긍정적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함
 - d. 여호와와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2. 엘리야가 사신을 통해 아하시야에게 전한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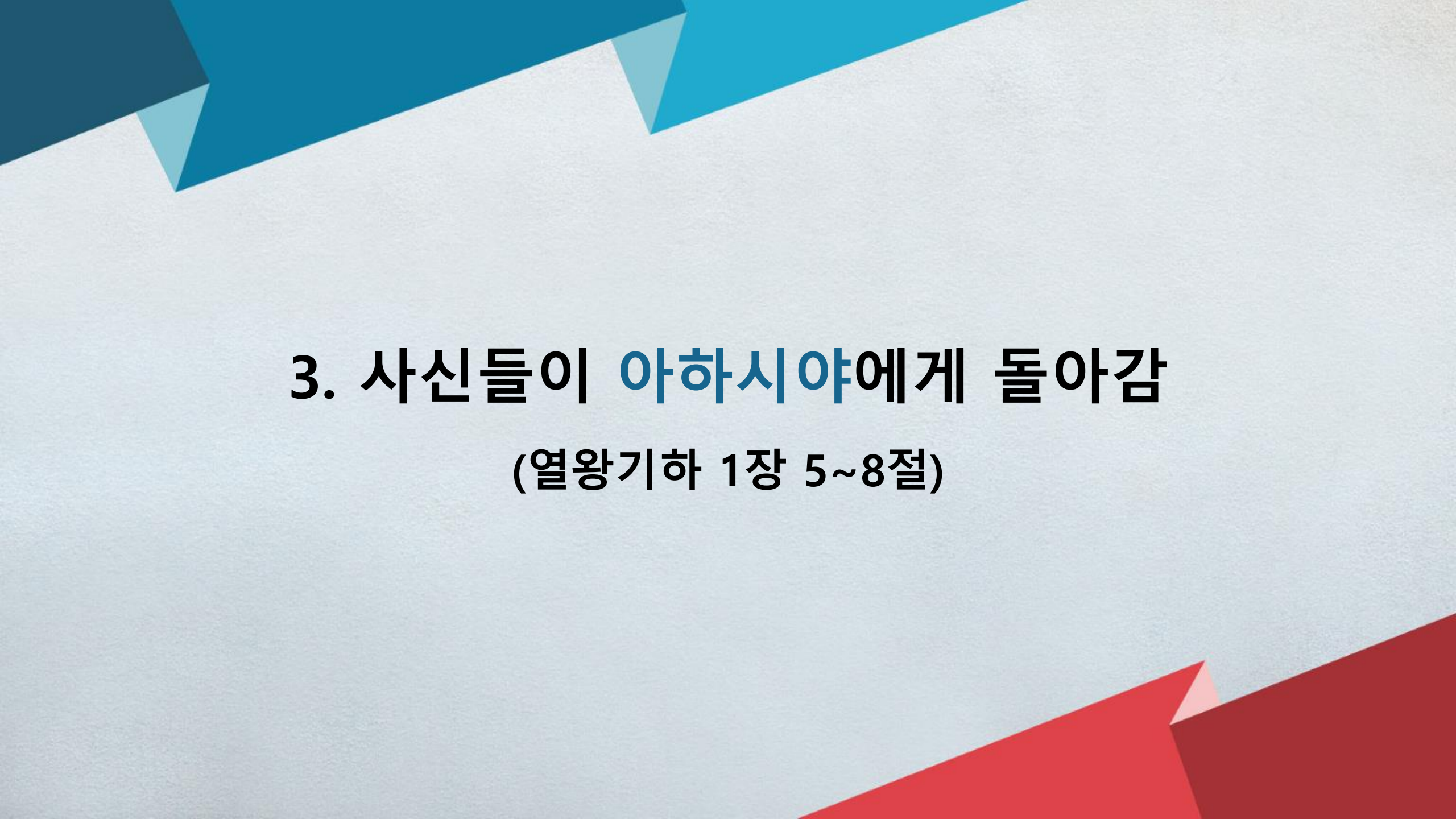
(열왕기하 1장 3~4절)

2. 엘리야가 사신을 통해 아하시야에게 전한 메시지

- 1) 여호와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아하시야가 바알세불에게 보내는 사신을
만나라고 지시하셨다

2. 엘리야가 사신을 통해 아하시야에게 전한 메시지

- 2) 엘리야가 사신들에게 전한 메시지 내용은 세가지였다
 - a.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뿔에게 물으러 가느냐?
 - b. 아하시야는 그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 c. 아하시야는 반드시 죽는다



3. 사신들이 아하시야에게 돌아감

(열왕기하 1장 5~8절)

3. 사신들이 아하시야에게 돌아감

- 1)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를 전해들은 사신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에글론으로 가라는 왕명을 어기고
중도에서 돌아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엘리야의 영적 권위에
완전히 압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엘리야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 문외한들이었다

3. 사신들이 아하시야에게 돌아감

2) 사신들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왕에게 전달했다 (왕하 1:6)

3. 사신들이 아하시야에게 돌아감

- 3) 아하시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사신들은 자신들이 본 그대로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고 말하자
아하시야는 그가 곧 엘리야임을 알아차렸다

‘털이 많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알 세아르’는 ‘털의 소유자’를 뜻한다

그런 점에서 엘리야는 실제로 머리와 얼굴에 털이 많았던 인물일 수 있다

그러나 ‘털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털이 많이 난 것이 아니라

털옷을 입은 모습을 표현하기도 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털옷은 선지자의 전통적인 복장이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슥 13:4)

털옷은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털옷을 입는 것은 속죄를 늘 지니고 산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세례 요한도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 (마 3:4)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속죄의 털옷을 입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열왕기하 1장 9~12절)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 1) 자신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 장본인이
엘리야인 것을 알게 된 아하시야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오십 부장과
그의 예하 병사를 보냈다
그런 일은 세 차례나 반복되었다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 2) 왕명을 받고 파견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십 부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하 1:9, 11)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권위보다
인간 왕명을 더 우선시하였다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 3) 이에 엘리야의 응답은 오십 부장이 지칭한 '하나님의 사람'과 연관된 심판 선언이었다 곧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사를 것이다"(10, 12절)가 선언되었고 그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 4) 엘리야는 불과 깊은 연관이 있는 선지자였다
 - a. 엘리야가 쌓은 갈멜산의 여호와 제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응답을 받았다 (왕상 18:38)
 - b. 두 명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심판을 받았다 (왕하 1:10, 12)
 - c. 마지막 승천할 때에도 불 수레와 불 말이 내려와 그와 엘리사를 갈라놓았다 (왕하 2:11)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 5)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불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 말씀이다
- a. 아사벨을 피해 호렙산으로 도피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간 후 세미한 소리의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19:11~12).
 - b. 엘리야는 불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야 한다. 사역 수단으로의 불은 특정 사람에 따라 주어지는 선택 사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사항이다

4. 아하시야가 보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심판을 받음

- c. 엘리야에게 주어진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 말씀은 당시대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큰 흐름과 관련된 것이었다 (왕상 19:15~17)
-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울 것
 -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
 -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를 삼을 것

5. 세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화를 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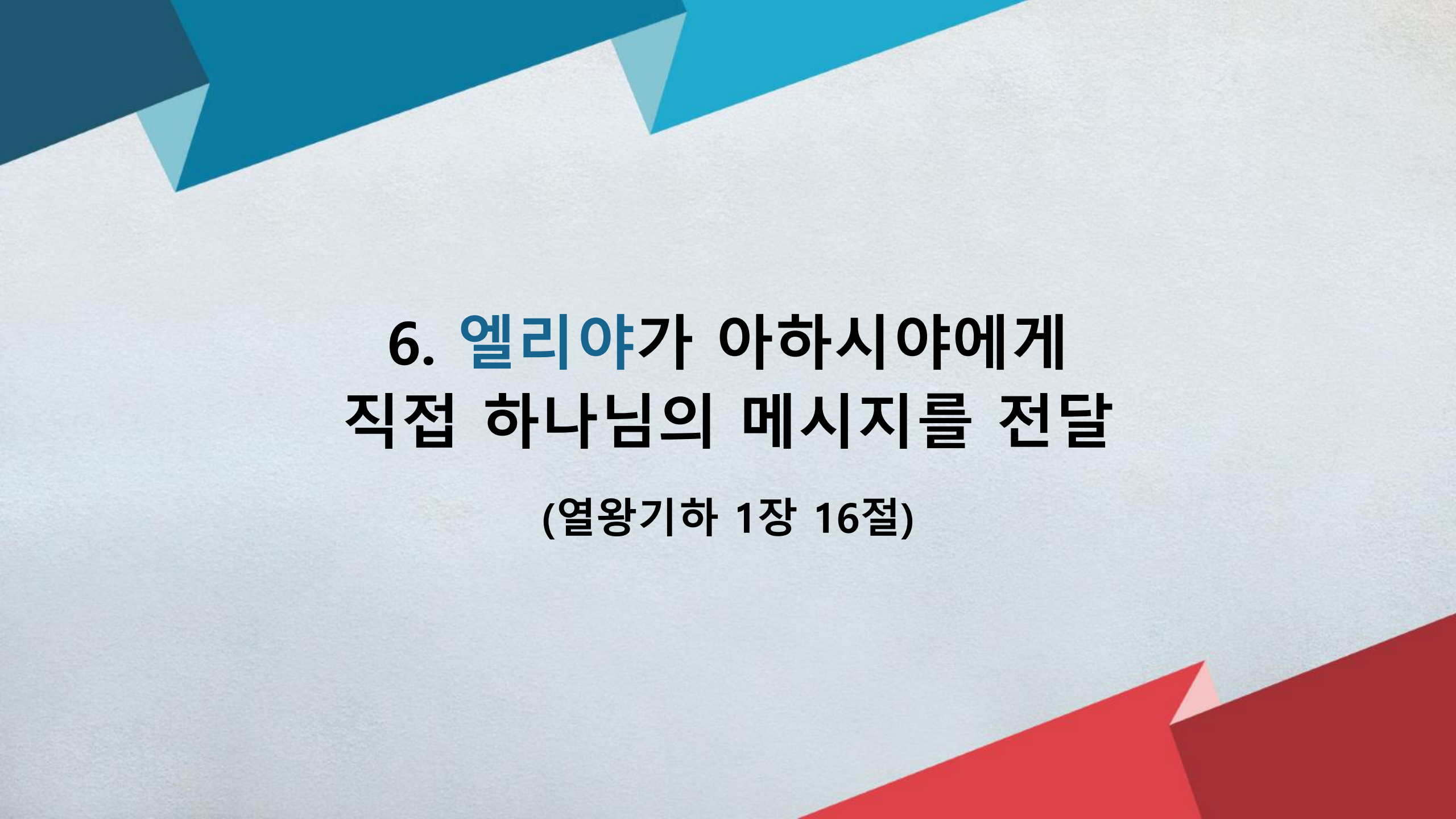
(열왕기하 1장 13~15절)

5. 세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화를 면함

- 1) 세 번째 오십 부장은 앞선 두 오십 부장과는 달랐다
그 역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그는 앞선 두 오십 부장과는 달리 왕명보다
선지자의 권위를 더 우선시하였다
- 2) 그가 엘리야에게 보인 태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그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 자신의 생명과 부하인 오십 명의 생명을 귀히 보아달라고 간구하였다
 -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앞선 오십 명을 불태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구하였다

5. 세 번째의 오십 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화를 면함

- 3) 오십 부장의 간구 속에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의 생명도 귀하다는 신앙적 자세가 담겨 있다
- 4) 오십 부장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
여호와와 사자는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내려가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오십 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심판을 모면했을 뿐 아니라 왕명을 수행하는 결과도 얻었다
- 5) 세 번째 오십 부장은 앞선 역사가 전해주는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었다. 앞서 이루어진 역사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전달해 주는 통로이다



6.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

(열왕기하 1장 16절)

6. 엘리야가 아하시야에게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

- 1) 아하시야를 만난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주었다
- 2) 그 내용은 앞서 사신들을 통해 전달한 것과 같은 내용이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 a.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뿔에게 물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 b.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 할지니라”
 - c. “네가 반드시 죽을지니라”

7. 아하시야의 최후

(열왕기하 1장 17~18절)

7. 아하시야의 최후

- 1) 엘리야의 선언대로 아하시야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
- 2) 그는 오므리 왕가의 네 왕 가운데
가장 짧은 2년 동안만 통치한 왕이었다
- 3) 그는 아들조차 없어서 동생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당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수치였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우리의 신앙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역사의 교훈에 바른 신앙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3. 우리가 선택할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